

3

5세기 백제인(百濟人)들의 대규모 도래(渡來)

만약 야마토 왜가 백제와 아무 관계 없이
성립되었다면 이러한 대규모 도래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
문화 인류학적 접근 방법

인류학자 비어즐리(1955)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요이(彌生) 문화가 시작된지 약 5세기후 . . . 일본은 새로운 문화적 영향의 표적이 되어, 봉분묘, 종국적으로는 쟁기의 사용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철의 사용, 일본 제2의 가축인 말 등이, 일본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추가 된다. 소규모의 단결된 사람의 무리가 정복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것은, 역사의 여명 바로 직전인 이 시대의 특징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 왜냐하면, 유목민족 혹은 대초원

에 그 근원을 둔 민족의 소규모 집단들이, 일본에 침입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이외의 침략자로서는 중국인 또는 한국인 모험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이샤워와 페어뱅크(1958: 464)는 지적한다: “유송조(劉宋朝, 서기 420-479년)가 멸망한 직후에 편찬된 이 나라의 정식 사서인 송서(宋書)는, 킨키(近畿) 지방에 그 중심을 둔 신생 야마토(大和) 국가에서 보낸 것이 분명한, 몇 차례의 사절단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라이샤워와 페어뱅크(1958: 468)는 다시,

“야마토 가야(伽耶) 사람들이
일본의 지배 집단과 문화적으로 가까웠을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지배집단 자신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이주해 왔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서기 397년부터 663년까지의 기간에 걸친 일본서기(日本書紀)의 서술에서 들어나고 있는, 야마토 왜(大和倭)와 백제의 지배자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야마토 황족의 원류가 가야가 아니라, 백제라는 것을 강력히 가리키고 있다.

쯔다(1963)에 의하면, “한반도를 거쳐서 들어온 중국 문명은, 먼저 궁정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영향력 있는 계급에 의해 흡수되었으며, 그 문화는 황족에 의해 완전히 받아 들여 졌다”는 것이다. 그는 “황실 자체가 새 문명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고,” 그 결과 황족의 이익을 위해 새 문명의 일부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생계와 직위를 유지하는 수많은 도모-노-미야즈코(伴造) 가문들이, 조정에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문명의 혜택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희망에서, 되도록 황족과 가깝게 있도록 만들었다”고 믿는다.

일본서기는, 오오진(應神)이 황족을 창시한 후 백제가 망할 때까지, 백제의 지배자들과 야마토 왜의 지배자들 사이에 유지된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 풍부한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고사기(古史記)도 일부 그런 기사를 실고 있다. 이 절에서는 그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기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서기(NI: 257)는 서기 398년, 한국 사람들이 저수지를 건설하는 대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임나(任那) 사람, 신라 사람들이 모두 함께 조정에 출두했다 . . . 이들 여러 한인(韓人)들에게 연못을 파게 했다. 그래서 이 못을 . . . 한인지(韓人池)라 불렀다”^{<1>} 고사기(KP: 284)는, “신라에서 사람들이 도래(渡來)했는데” 다케우치노 스쿠네의 지휘 아래 연못을 만들었으며, 이것을 “백제지(百濟池)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2>} 일본서기(NI: 261-263)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기 403년] 백제왕은 . . .
 마케쯔(眞毛津)라는 침모(針母)를 보냈다.
 그녀가 현재의 구메(來目)재봉부의 시조다 . . .
 백제왕은 [서기 404년]
 아직기(阿直岐)와 더불어 온순한 말 두 필을 보냈다 . . .
 아직기는 경전을 읽을 줄 알았으므로,
 태자(太子)는 . . .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이어 천황이 아직기에게,
 ‘당신나라에 그대보다 더 훌륭한 학자가
 또 있는가?’라고 물었다.
 아직기는 ‘저보다 훌륭한 왕인(王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고즈케 기미(上毛野君)의 선조 아레다 와케(荒田別)와
 가무나기 와케(座別)를 백제로 보내어 왕인을 데려 오게 했다.
 이 아직기는 아치키노 후미비토(阿直岐史)의
 시조가 되었다. 왕인이 도착했다 . . . 태자는 . . .
 즉시 그를 스승으로 삼고 그에게서 온갖 책들을 배웠다.
 왕인이 통달하지 못한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왕인은 (글을 쓰는 우두머리인)
 후미-노-오비토(書首)의 시조가 되었다.”^{<3>}

일본서기는 왕인이 오오진(應神) 16년에 왔다고 적고 있다. 애스텐(NI: xi)은 그 해가 서기 405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¹ 우리는 고사기(KP: 284-285)에서도 비슷한 기록을 발견할수 있다: “. . . 백제 땅의 소고왕(照古王, 近肖古王, 재위 349-375년)은 숫말 한 필과 암말 한 필을 선사했으며, 아지키시(阿知吉師)를 딸려 보냈다. 이 아지키시는, 아치키-노-후미비토(阿直史)의 시조가 된다. 백제왕은 또 칼 한 자루와 큰 거울 하나를 선사했다. . . . 그는 와니키시(和邇吉師, 王仁)라는 사람도 보냈다. 백제왕은 또 논어(論語) 10권, 천자문 1권, 모두 11권을 그에게 주어 보냈다. 이 와니키시는 후미-노-오비토(文首)의 조상이다. 다시 백제왕은 두 사람의 기술자를 선사했다: 탁소(卓素)라는 대장장이와 서소(西素)라는 구레(呉)의 직공(織工)이다. 하타-노-미야쓰코(秦造)의 조상, 아야-노-아타헤(漢直)의 조상, 그리고 인번(仁番)이라는 양조 기술을 아는 사람 (그는 스스코리 라고도 불렀다)등이 또 도래(渡來)해 왔다. 스스코리는 훌륭한 술을 빚어 오오진에게 바쳤고, 오오진은 그 좋은 술을 아주 즐겼다. . . . ”^{2 (4)}

호무다(嚮田)가 야마토 국가를 창건하자, 많은 사람들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다. 삼국사기 (이병도 역주, 하: 46)는 백제가 서기 399년에 많은 세대(世帶)를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일본서기 (NI: 261)는 서기 403년에 궁월(弓月)이 백제로부터 도착했다고 적고 있다.³ 일본서기 (NI: 261)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 . 궁월군(弓月君, 新撰姓氏錄에는 融通王)이 백제

¹애스텐(NI: sii)은, 왕인이 또 대장성에서 회계처리를 맡아보게 되었다고 덧붙여서 말한다.

²고사기(KP: 302)는 “하타 사람들이 . . . (닌토쿠 재위 기간중에) 마무타 제방과 마무타 미야케를 축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⁵⁾

³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46)는 서기 399년 아신(阿莘)왕 8년에, “왕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많은 말과 병사를 징집하였으며, 이때문에 많은 백제인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신라로 달아나게 되어, 나라의 호구(戶口)가 크게 감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로 부터 건너와서 아뢰었다. . . . ‘신이 우리고장 120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귀화를 하러 오는도중, 신라인들이 길을 막아, 그들 대부분이 가라(加羅)땅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궁월군이 거느리고 오던 사람들을 가라에서 데려오기 위해 가쓰라키(葛城襲津彦)가 파견되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으나 가쓰라키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본서기(NI: 263-264)는 계속 말한다: “네 구리의 키즈와 이쿠바의 타다가 가라에 파견되었다. 그들에게 정예병사를 주면서 하명해 말하기를 ‘[가쓰라키] 소쓰히코의 귀환이 이렇게 늦은 것은, 필경 그가 신라의 저지로 [가라 땅에] 갇혀있기 때문인것 같다. 너희들은 속히 가서 신라를 무찌르고, 그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 주도록 하라.’ 이리하여 키즈등은 정예병사를 이끌고 신라의 국경에 도착했다. . . 그들은 [서기 405년] 궁월군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소쓰히코와 함께 돌아왔다.”

일본서기(NI: 264-265)는 다시, 서기 409년에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倭漢直)의 선조인 아찌노 오미(阿知使主, 新撰姓氏錄에는 阿知王)와 그의 아들 쓰가노 오미(都加使主)가, 17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주해 왔다(來歸)”고 기록하고 있다.⁶⁾ 히라노(平野邦雄, 1977)는 “이같은 사례는 한일관계의 기원을 오오진조(應神朝)로부터 시작하는 일본서기와 속일본기의 일반적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샌섬(1963: 38)에 의하면, 새로 수립된 야마토 “왕실은. . . 숙달된 기능공 혹은 전문가들의 단체를 새롭게 조직했다. . . . 그런 사람들은 서기 400년경부터 한국에서 건너 오기 시작한 피난민들 가운데서 모집할 수 밖에 없었다. . . . 그들 가운데는 가족과 함께 건너온 훌륭한 집안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전직 고위 관리들, 학자들, 예술가들도 섞여 있었으므로, 그들은 조정에서 환영을 받았다. . . . 일본의 일꾼들에게는 아직도 낯선 제조기술에 대해 정통한, 갖가지 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쓸모가 있었다”고 말한다.

일본서기(NI: 349-351)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기 463년 유우라쿠조(雄略朝) 때에, “천황의 측근에 있던 간인지리(歡因知

利)라고 부르는, 서 아야(西漢, 가하치 아야)의 숙련된 장인이, 천황 앞에 나가서, ‘한국땅 [백제]에는 저보다 훨씬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오게해서 천황님을 섬기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천황은 군신들에게 명령했다: ‘그렇다면, 간인지리로 하여금 오토키미(弟君) 일행을 따라가게 하여 백제의 지시를 받게 하는 한편, 기술자를 제공하라는 나의 칙서를 백제에 전달하라.’ 그래서 오토키미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무리들을 이끌고 백제로 건너갔으며. . . 백제가 제공한. . . 이마키(今來, 새로왔다는 뜻으로, 앞서 일본에 건너온 이주민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 기능공들을 집합시켰다. . . 결국 그들은 야마토(倭國) 아토의 히로키쓰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다. 이때문에 천황은 오오토모노 오오무라지(大伴大連) 무로야(室屋)에게 명하여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東漢直) 쓰카미를 시켜, 모두 이마키 아야(新漢)에 해당하는, 도자기 베(部)의 고귀, 안장 베의 견귀, 회화 베의 인사라아, 능직 베의 정안나, 묘안나, 그리고 통역관을, 상 모모하라(上桃原), 하 모모하라(下桃原), 마가미노하라(眞神原) 등 세 군데의 다른 거주지[大和國 高市郡]로 옮기게 했다. 어떤 책은, ‘오토키미(吉備臣弟君)는 백제에서 돌아와, 아야직공 베(漢手人部), 재단사 베(衣縫部), 무두장이 베를 바쳤다’고 말하고 있다.”⁴

애스턴(NI: 350n)은, “아야 혹은 한(漢)은, 이제 세 갈래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즉, 동한 혹은 야마토 아야(東漢), 서한 혹은 가와치 아야(河內漢), 신한(新漢) 혹은 이마키 아야(今來漢)가 그것인데, 여기서는 이 아야의 도입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 [백제]에서 온 기능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⁴더글라스(1978)는 지적한다: “5세기 초에, 도기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집에서 낮은 온도에서 구어 만든, 연질 항아리에서, 전문적인 도공에 의해 회전판위에서 성형되고 섭씨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어진, 스에키(須惠器)로 알려진 단단한 토기로 바뀐 것이다.”

물론 일본서기에 신라나 고구려와의 교류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일본서기(NI: 282)는 신라와 고구려가 닌토쿠(仁德)에게 어떤 선물을 보냈으며, 또 서기 493년에 “히타카가 고구려에서 돌아와 천황(仁賢)에게 숙련 기술자 수류기와 노류기를 바쳤는데, 그들은. . . 야마토(倭國)지방의 고구려 무두장이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NI: 397).⁶⁾ 그러나 신라나 고구려와의 교류를 다룬 대목에서는, 어떤 친근감 같은 것이 스며 있다는 것을 느끼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다.⁵⁾

8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일본은 눈에 띄만한 량의 동이나 금을 자체 생산한것 같지 않으며, 철의 국내 공급마저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던것 같다. 동광석의 생산은, 속일본기(스넬렌 역주: 173)의 서기 697년 조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무사시(武藏)의 치치부 지역에서 “자연산”의 연한 구리(니키 아카가네)가 발견된 것을 기념하고 있는 와도원년(和銅元年)은, 서기 707년으로 기록되어 있다(전계서: 215). 그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칙령이 공포되었었다(전계서: 217): “. . . 이것은 천지 신명이 (신을 숭상하는 우리의 지성을) 받아 들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표시로 내려 주신 보물이 분명하다. . . 이 보물은 신명의 귀한 표시로서 발견된 것이다. . . ”⁶⁾

금의 제련은, 속일본기(전계서: 117) 서기 698년 조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금이 발견을 기념하는 다이호(大寶) 원년은, 속일본기(전계서: 190)에 “쓰시마(對馬)섬이 금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는 서기 701년이다.⁷⁾ 그러므로 고분에서 금제 또는 동제 공

⁵⁾신라와 관련된 기록으로서 전형적인 것(NII: 284)은 다음과 같다: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이유를 묻기 위해. . . 토다(戶田)를 파견했다. 이에 신라인은 곶을 먹고 비단 1,460필을 바쳤다.”

⁶⁾속일본기(전계서: 218)에는 다시, “처음으로 주화의 제조를 촉진하는 관서가 설치되었으며,” 서기708년에는(전계서: 226) “동전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⁷⁾속일본기(전계서: 196)는, 지적한다: 서기 701년에 “쓰시마(對馬島)의 태수와 각

예품과 많은 양의 철제품이 발견되는 것은, 고분시대에 백제로부터 야마토 왜로의 재료·기술·문화의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 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오키(1974: 12-15)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삼이[일본] 섬에 전해져서[야요이 시대의]일본 신들이 옷을 해 입었다. 일본의 신들이 비단옷을 얻어 입기 위해서는, 대륙 문화가 새로이 밀어닥친 4세기와 5세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 . 야요이 시대에는 철과 청동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귀했다. . . 대륙사람들이 가지고 온, 더 날카롭고 더 내구성이 강한 무기들은, 그런 것을 가질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헐사리 무찌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윤동석(1990: 22-23)은, 옛백제지역, 다시 말해서 한강 근처의 구이동에서 출토한 쇠도끼 한 자루와 화살촉 세개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다. 그는 그 도끼가 해면철(海綿鐵)로 만든 것이었으며, 탄소성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쇠는 과공석족(過共析族) 강철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도끼는 중첩 단조(鍛造)의 방법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며, 고온에서 몇 번이나 불려서 공기에 식힌 것이다. 쇠화살촉도 높은 온도에서 몇 번이나 불린 다음 공기에 식혀서 만든 것이었다. 원료는 역시 해면철이었으며, 고탄소강(高炭素鋼)형에 속했다. 비금속에 산화(酸化)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고열 제강법(製鋼法)은 이런 종류의 철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윤동석(1990: 20)은,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백제에서는 그때까지 발전해온 기술에 기초를 두고, 금속과 산업기술이 크게 발전된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5세기까지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직접적인 해상 교통이 없었다.

각 지역의 장, 서기 및 그 이상의 관리들은 한 계급씩 승진되었으며, 금이 나온 지역의 장은 두 계급이 승진되었다. 금을 발견한 아카베노 미야지 에게는 쇼하치 이조가 수여되고, 또 조건(相綱)·풀숨·의복·괘이가 하사되었다. 그의 가족은 평생 동안,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3년 동안 조세가 면제되었다.”

5세기 이후에도, 적대적인 고구려 또는 신라의 존재 때문에, 혹은 그 위험천만한 남지나해 때문에, 일본사람이 중국에 도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때문에, 백제는 중국이 일본에 알려지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중간 매개체가 된 것이다. 중국의 글씨 쓰는 지혜가 서기 405년 일본에 전해졌는데, 이것은 백제로부터 왕인(王仁)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들을 계속 초청해 올수 있었던 야마토 황족 덕분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야마토 황족은 백제이민의 끊임없는 흐름을 유도함으로써, 일본의 예절·제도·생산기술, 그리고 문명 전체에 혁명을 가져오도록 만든 도구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시다(石田英一郎, 1974: 85)가 말하고 있듯이, 만약 야마토 왜가 백제와 아무 관련도 없이 성립되었다면, 백제에서 왜로의 그와 같은 대량 이동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고고학적으로 말한다면, 아요이(彌生)시대 일본을 고분(古墳)시대로 인도한 것은, 오오진(應神)계 황족이었다. 아오키(1974: 19)도 “일본 열도의 영웅들은, 농경제는 번창했어도 중국화(中國化)는 확고히 되지 않은, 중국 문명의 번두리 지역 출신이 거의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